

성인형 주관절 박리성 골연골염

- 1례 보고 -

문영래, 유재원

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51세 남자 환자가 2년 전부터 발생한 주관절 외측부 동통 및 진행되는 관절운동 제한으로 내원하였다. 방사선 소견상 주관절 전방부에 유리체의 소견이 보이고, 주두부에는 골극의 형성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소견상 상완골 소두에서 유리체화된 골연골체를 관찰 할 수 있었다. 주관절경 술식을 이용하여 유리체화된 골연골 병변을 제거하고 주두 후방부에서 신전을 제한하는 골극에 대해 절골술을 시행하였다. 주관절의 박리성 골연골염의 드문 질환으로 청소년기에 비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관절경하 제거후 본 증례의 경우 1년 추시상 10-120도의 운동 범위로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. 저자들은 51세 남자에서 발견된 1례의 상완골 소두의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해 유리체화된 골연골편을 제거를 시행하고, 1년 추시상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

Fig. 1 MR image showing the osteochondral fragment in the capitellum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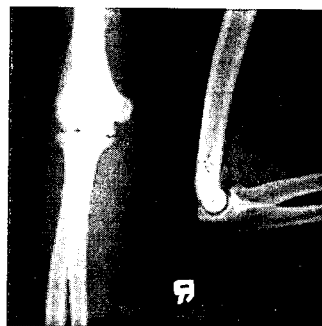


Fig. 2 Preoperative X-ray showing loose body and spur formation of the olecranon.